



김진철 교수의 신나는 실전 골프

〈전남과학대 골프·프로캐디학과 교수〉

나무 사이 있는 볼

긴 클럽 짧게 잡고 찍어치는 스태프샷

나무 밑에 있는 볼

뒤로 돌아 한 손으로 치는 거꾸로샷

■ 장애물에서의 탈출법

아마추어 골퍼들이 샷하기 어려운 트러블(trouble) 상황에서 나름대로 탈출 샷을 시도하지만 뜻대로 되지않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프로들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상황에서 무리한 샷을 날리기도 한다.

그 결과는 대부분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된다. 자신이 없을 때는 안전하게 플레이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요소를 고려해서 효과적인 탈출을 시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프로 루어의 경우 매치플레이 경기에서 페널티 드롭을 받는 것이 한 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 게임을 잃을 수도 있다.

아마추어들의 친선 게임에서는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를 시험할 수도 있다.

이번 실전골프에서는 볼이 나무 숲에 놓여져 있는 경우 등 장애물에서의 탈출법을 소개 한다.

#1 나무사이에 볼이 놓였을 때

만약 볼이 나무들 사이 또는 큰 숲 뒤에 있다면 스윙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볼을 보내려는 경로상에 엉켜있는 나무가지 이다. 나무들이나 그 밖의 장애물 사이에 놓여있는 볼을 한번에 꺼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경우는 비교적 시간이 걸리며, 무엇보다 상황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사이가 너무 좁아 몸을 들이밀 수 없거나 전혀 샷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는 옆이나 뒤로 우선 볼을 탈출시켜 놓고 보는게 좋다.

그러나 샷을 해볼 만한 상황이라면 홀의 방향에 관계없이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어드레스를 취하도록 한다. 정상적인 샷을 하면 볼이 나무가지에 걸릴 위험이 있어 낮게 깔려갈 수 있도록 샷한다.

이러한 경우 긴 클럽을 짧게 잡고 샷하는게 좋다. 로프트가 작은 클럽을 선택하



스태프 샷의 피니시는 왼쪽 손목이 돌아가지 않고 곧게 펴져있어야 한다.

나무 사이 너무 좁을 땐

옆이나 뒤로 우선 탈출

안전한 플레이가 최상

는 것이 우선이다. 로프트가 큰 클럽은 볼이 떠오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클럽은 4번이나 5-6번 아이언을 선택해 날카롭게 찍어치는 스태프 샷(stab shot·볼을 찌르듯이 타구하는 법)을 하는 것이 좋다. 클럽에 따라 탄도는 자동적으로 결

정된다. 이런 상황에는 비거리 보다 방향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라인업을 정확히 정한 후 타구 방향에 대해 클럽페이스를 직각으로 소울한다. 손을 볼보다 앞으로 내어 그림하기 때문에 클럽페이스의 로프트가 꺾이게 된다. 날카롭게 볼을 찌르듯 타구동작을 취하는 것은 클럽헤드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몸이 스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플레이를 하기 전에 몇 번이고 스윙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피니시는 왼손목이 돌아가지 않고 반듯하게 펴는게 중요하다.

#2 나무 바로 밑에 볼이 있어 샷하기 어려울 때

이 샷은 볼이 나무 밑동에 떨어져서 평소 하던 스태프샷을 만들 수 없을 때, 즉 어드레스 자세를 갖기 어려울 때이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골퍼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나무가 서 있는 경우이다.

페널티 드롭 만이 유일한 선택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골퍼가 거꾸로 샷하는 법을 터득하면 페널티 드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우선 골퍼가 치고자 하는 방향과 등을 돌려 반대방향으로 돌아서야 한다. 그리고 왼손 혹은 오른손으로 쳐내면 되는 것이다.

어드레스 자세는 우선 클럽 중에서 로프트가 큰 것을 선택한다. 이는 긴 아이언 보다 볼을 띄울 수 있는 면이 넓기 때문이다. 목표물을 등지고 골퍼의 오른발이나 왼발에서 15cm 정도 거리에 볼을 위치시킨다.

클럽을 잡아야 하는 손으로 그림을 잡고 클럽을 돌려서 클럽헤드의 앞쪽이 바닥에 닿도록 한다. 이 때 클럽면은 목표물을 향하도록 한다. 그리고 클럽 헤드에 힘을 줘서 임팩트 하면 된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나무사이에 볼이 놓였을 땐 로프트가 작은 클럽을 선택해 볼을 찍어치는 스태프 샷을 구사하는게 좋다.



나무 바로 밑에 볼이 있어 어드레스를 취하지 못할땐 뒤로 돌아 한 손으로 치는 방법이 있다.

시추에이션 골프 롤

개울에 빠져 OB구역 방향 흐르는 볼

미리 집어들려 해저드 구제조치 받아

Q : 두번째 샷이 개울에 빠져 흐르는 물을 따라 결국 OB구역 안으로 들어가 버렸을 때,

A : 바람과 물에 의해 볼이 움직인 경우에는 그 볼이 멈춘 곳에서 플레이를 계속해야 한다. 그러므로 볼이 OB구역 안으로 들어가 멈추어도 페널티 없이 구제를 받을 수는 없다. OB의 1페널티를 부과하고 마지막 플레이 지점(두번째 샷을 한 지점)으로 되돌아가 드롭하여 플레이를 계속 해야 한다.

Q : 개울에 빠져 OB구역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볼을 미리 집어들렸을 때,

A : 워터 해저드의 구제조치를 선택하여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볼을 페널티 없이 집어들릴 수가 있다. 위의 상황에서 어차피 1페널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볼이 멈추기를 기다렸다

OB의 구제조치를 선택하는 것보다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구제조치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Q : 개울에 빠진 볼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 그대로 샷을 하였는데 자신의 볼이 아니었다.

A : 볼이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페널티 없이 샷을 할 수가 있고, 오구의 플레이가 발생하여도 페널티가 없다. 단, 바람이나 물에 의해 볼이 좋은 상황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거나 부당하게 플레이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2페널티를 부과한다.위의 상황에서는 개울로 되돌아가 자신의 볼을 찾아 플레이를 계속 해야 되고, 만약 볼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1페널티를 부과하고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구제조치를 한다.

금주의 골프용품

위성미가 사용... 빠르고 정확한 퍼팅

나이키 메소드 퍼터

메소드(Method) 퍼터는 나이키 골프만의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폴리메탈 그루브 기술을 적용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퍼팅을 가능하게 만든다.

메소드 퍼터에 적용된 폴리메탈 그루브 기술은 전통적인 스틸 페이스 퍼터가 백스핀으로 인해 공이 지면에서 떨어져 미끄러지면서 구르는 것과는 달리, 전방회전으로 공이 바로 구르기 시작함으로써 공의 뒤편(바운스)을 최소화하고 퍼팅 라인을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해준다.

또한 임팩트 때 진동을 완충시켜 부드러운 타구감을 갖게하고, 다양한 재료가 혼합된 메소드 퍼터의 페이스는 금속 특유의 타구음을 제공해 보다 쉽게 거리감을 조절하게 해준다.

메소드 퍼터는 2009년 US오픈



의 루카스 클로버와 브리티시 오픈 챔피언십의 스튜어트 싱크 등이 최근 2개의 메이저 대회를 포함해 총 5개의 PGA 투어에서 우승을 거두었으며, 위성미 역시 메소드 퍼터를 사용해 그 기술의 우수함을 입증했다.

/취재협조:골프프리카 062-368-7800

가볍고 편안하고 맛있는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산양부오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은,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특히,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은,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특히,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은,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은,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특히,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은,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특히,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은,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문의: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아이엘리시아

고급적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침대)

- 점심 (11:00 ~ 14:00): 12,000원, 13,000원, 14,000원
- 저녁 (17:00 ~ 21:00): 15,000원, 16,000원, 17,000원

062)671-1199

평소부터 타미널 2층 COV Hall